

보훈 공공외교 확장하기: 인천상륙작전을 중심으로

문예찬

(연세대학교, 정치학과 박사과정)

〈 초 록 〉

인천상륙작전의 의의는 군사적 승리에 그치지 않는다. 본 연구는 인천상륙작전이 대한민국의 보훈 공공외교 자산으로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평화와 번영을 증진하는 공공외교적 도구로서의 잠재력을 탐구한다. 본 논문은 공공외교와 보훈외교의 이론적 틀을 바탕으로 인천상륙작전이 국내외에서 갖는 정치적, 외교적 중요성을 재조명한다. 공공외교의 측면에서 인천상륙작전은 한국이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국제사회에 전달할 수 있는 상징적 자산으로 평가되며, 이는 현재에도 유효한 외교적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인천상륙작전은 다국적 군사 작전으로서 유엔 참전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국제적 연대를 구축하고, 대한민국의 보훈외교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해준다. 본 연구는 인천상륙작전의 보훈공공외교적 활용방안을 제시하여 한국의 외교 역량 강화를 위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핵심어: 인천상륙작전, 공공외교, 보훈외교, 한국전쟁, 민주주의

* 문예찬, ans3981@naver.com

1. 서론

인천상륙작전은 1950년 9월 15일, 한국전쟁의 흐름을 뒤바꾼 군사작전으로 역사적 가치가 매우 크다 (유영옥, 2010). 당시 맥아더 장군이 이끄는 UN군은 북한군의 점령하에 있던 인천에 상륙하여 서울을 탈환하는 데 성공했으며, 이는 한국전쟁의 전황을 전환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인천상륙작전의 의의는 단순한 군사적 승리로만 평가될 수 없다. 한국전쟁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동시에 당시 국제 공산주의의 도전에 맞설 수 있음을 증명하는 계기였다는 점에서(Stueck, 1997; Boose & Matray, 2014), 인천상륙작전의 의의는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인천상륙작전은 어떻게 다루어졌는가? 인천상륙작전은 대부분 한국전쟁의 일부로 다뤄지며(김동길, 2015; 박병철, 주인석, 2021; 이상의, 2021), 그 의의가 실질적으로 나타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인천상륙작전은 윤석열 대통령이 인천상륙작전 73주년 기념 행사에서 강조하듯, 공산 전체주의 세력을 물리친 자랑스러운 역사이며, 자유민주주의 체제 확립을 위한 마중물이라 할 수 있다. 공공외교에 대한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현 시점에서(Snow, 2020), 인천상륙작전을 활용한 공공외교전략은 한국의 외교적 입지 확보와 향후 외교 정책 수립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선행연구에서는 한국 공공외교 전략 및 정책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며, 경제적 효과, 공공외교 활성화 방안, 발전방향 등을 제시하였다(주미영, 2015; 김형수, 노병렬, 2016; 백우열, 2017). 이들은 한국 공공외교 수립 및 추진에 기여함은 물론 공공외교 관련 학문적 담론 형성을 이끌어냈다. 그러나 공공외교 관련 연구는 아프리카, 브라질, 튀르키예 등 특정 지역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많으며(이한규, 2020; 정호윤, 2022; 권혜원, 2023), 실제 공공외교 진행에서도 지역적 편중이 나타난다(변지영, 정현주, 2018).

이러한 상황에서, 가치외교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현 국제질서는 한국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 세계 속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민주적 가치로 대표되며(최지선, 2023), 한국의 공공외교는 보편적 가치의 기준에서 초점을 맞추어 발전될 필요가 있다(홍석훈, 2023). 즉, 민주주의가 외교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는 상황에서(성병욱, 2013), 한국은 민주주의 기반의 공공외교 추진을 고려해볼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인천상륙작전은 한국의 공공외교 수립에 함의하는 바가 매우 크다.

인천상륙작전은 대한민국의 공공외교(public diplomacy) 및 보훈외교(veterans diplomacy)의 자산으로 재조명될 수 있다. 공공외교는 국가가 외국 대중과의 소통을 통해 자국의 가치를 국제사회에 전달하고,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는 외교 활동을 의미한다(김태환, 2021). 보훈외교는 국가가 전쟁에서 희생한 참전용사들의 공로를 기리며, 이들을 중심으로 국제적 유대를 강화하는 외교 활동이다(유호근, 2015). 인천상륙작전은 공공외교와 보훈외교의 이론적 개념이 결합되어 설명할 수 있으며, 이는 자유와 평화, 번영을 추구하는 대한민국의 외교 정책과 연계성이 높다. 특히, 인천상륙작전은 한국이 민주주의와 자유의 가치를 국제사회에 전파하고, 보훈외교를 통해 유엔 참전국들과의 협력을 유지하는 외교 자산으로 평가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연구는 인천상륙작전의 군사적 성과에 중점을 두었으며, 주로 전술적 성공과 전략적 전환점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 왔다. McLellan(1968)과 이상호(2019)는 인천상륙작전이 북한군의 남하를 저지하고 전세를 반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강조했으며, 이 작전이 한국전쟁 전체에서 차지하는 군사적 의의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작전의 전술적 성공과 그로 인한 한국전쟁의 흐름 변화에 집중했지만, 인천상륙작전이 지닌 외교적, 공공외교적 가치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루지 못한 한계가 있다.

현대 외교 환경에서 공공외교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역사적 사건을 외교적 자산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학술적 분석이 요구되고 있다(Cull, 2009; 한의석, 2023). 인천상륙작전은 대한민국이 공공외교를 통해 국제적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는 상징적 사건으로, 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보훈외교의 관점에서 인천상륙작전은 유엔 참전국들과의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외교적 함의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이 매우 요구되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인천상륙작전의 외교적 함의를 공공외교 및 보훈외교의 이론적 틀 내에서 재조명하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자유와 평화, 번영의 가치를 확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본 연구는 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의미를 현대 외교 환경에 맞게 논의하고 공공외교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2. 이론적 배경

1) 공공외교

공공외교(public diplomacy)는 전통적인 정부 간 외교(diplomacy)와 달리, 국가가 자국의 이미지를 국제사회에 홍보하고, 외국 대중과의 소통을 통해 국가의 가치를 전파하는 외교적 활동을 의미한다(Huijgh, 2016). 20세기 중반 이후 등장한 공공외교 개념은 냉전 시기 미국과 소련 간의 이념 경쟁 속에서 더욱 부각되었으며, 이후 전 세계적인 상호 의존성과 정보화 사회의 발전에 따라 그 중요성이 더욱 확대되었다. Tuch(1990)는 공공외교를 “국가가 외국 대중과 소통하고 자국의 이념, 정책, 문화를 효과적으로 전달하여 국제사회에서의 지지와 협력을 얻는 활동”으로 정의하였다. 이는 전통 외교와 달리 국민을 직접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Nye, 2008).

공공외교의 핵심은 소프트 파워(soft power) 구현에 있다. 소프트 파워는 Joseph Nye(1990)가 제시한 개념으로, 이는 군사적 또는 경제적 강압 대신 매력과 설득을 통해 상대국이 자발적으로 협력하도록 만드는 힘을 의미한다. Nye는 전통적인 하드 파워(hard power)와 달리, 소프트 파워는 문화적 매력, 정

치적 가치, 외교적 정당성 등을 통해 국제사회의 자발적인 지지를 얻는 방식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한다. 공공외교는 소프트 파워의 주요 수단으로, 특히 국가의 문화, 가치, 외교 정책을 대중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함으로써 국제적 이미지 제고와 외교적 협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대한민국의 경우, 공공외교의 주요 수단으로 한류(Korean Wave)를 적극 활용해왔다(고정민, 2021; 이유나, 2021). K-pop, K-drama 등으로 대표되는 한류는 한국의 문화적 매력을 전 세계적으로 확산시키며, 대한민국의 소프트 파워를 증대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진달용, 2021). 이처럼 문화적 매력을 활용한 공공외교는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긍정적인 국가 이미지를 구축하고, 다양한 외교적 협력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해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인천상륙작전도 국제사회에 한국의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 의지를 전파하는 상징적 사건으로서 공공외교적 자산이 될 수 있다.

21세기 들어 공공외교는 새로운 형태로 발전했다. Jan Melissen(2005)은 이를 신공공외교로 정의하며, 전통적인 국가 주도의 일방향적 외교에서 벗어나 다양한 비국가 행위자들(NGOs, 민간기업, 지방정부, 개인)이 참여하는 다층적 외교 활동이 강조된다고 주장한다. 신공공외교는 정보화 사회의 발달과 함께 소셜 미디어, 디지털 플랫폼 등을 통해 대중과 실시간으로 상호작용하며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중점을 둔다. Gregory(2008)는 공공외교가 과거의 일방적 정보 전달 방식에서 벗어나 대중과의 쌍방향 소통을 강조하게 되었다고 분석한다. 소셜 미디어와 같은 디지털 매체를 통해 대중과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그들의 반응을 반영하는 것이 현대 공공외교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았다. 이는 정부가 대중의 의견을 반영하고, 공공외교를 통해 자국의 정책과 가치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진화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신공공외교의 개념은 인천상륙작전과 같은 역사적 사건을 통해 대한민국이 평화, 자유, 협력이라는 가치를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고, 국제 대중과의 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의제로 활용될 수 있다. 인천상륙작전은 대한민국의 공공외교적 자산으로서 활용될 수 있는 역사적 사건이다. 이 작전은

<표 1> 공공외교의 변화

외교의 요소	전통외교	20세기 공공외교	21세기 신공공외교
주체	정부	정부	정부와 다양한 민간주체
대상	상대국 정부	상대국 정부 및 대중 (자국민은 불포함)	상대국 정부 및 대중 (자국민도 포함)
자원과 자산	하드파워	하드파워 > 소프트파워	하드파워 < 소프트파워
매체	정부간 공식협상, 대화	선전, PR캠페인, 구미디어	인터넷, SNS 등 디지털 매체 등 다양화
관계유형	수평적 (정부간)	수직적, 일방향적, 비대칭적	수평적, 쌍방향적, 대칭적
소통의 양식	Closed Negotiation	Closed Communication	Open Communication

자료: 외교부. 공공외교란? https://overseas.mofa.go.kr/www/wpge/m_22709/contents.do

단순한 군사적 승리를 넘어, 국제사회에서 민주주의 수호와 자유의 가치를 상징하는 사건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특히, 유엔군이 참여한 다국적 군사작전이라는 점에서, 이는 국제적인 협력과 연대를 상징하는 사건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인천시는 이를 기반으로 인천상륙작전 기념주관을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인천상륙작전 메타버스 콘텐츠를 제작하여 대중과의 소통을 활성화하고자 하였다. 인천시는 2025년부터 인천상륙작전 기념주관을 국제 행사로 확대하여 자유와 평화, 번영의 가치를 전 세계에 전달하는 공공외교적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2) 보훈외교

보훈외교(veterans diplomacy)는 국가가 전쟁이나 분쟁에서 희생한 군인들과 그 가족들의 공로를 기리며, 이를 외교적 자산으로 활용해 외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외교적 활동을 의미한다(Kim et al., 2024). 보훈외교는 단순히 국가의 내적 보훈 정책을 넘어서, 전쟁에 참전한 외국과의 외교적 유대를 강화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외교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대한민국의 경우, 한국전쟁 당시 참전국들과의 외교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보훈외교가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이상현, 2022). 보훈외교는 전쟁 참전국들과의 외교적 관계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동시에, 참전용사 및 그 가족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방식으로 국제적 협력을 증진시키는 활동이다. 이는 국가 간 전쟁의 희생을 기리고, 참전국들과의 외교적 신뢰를 강화함으로써 전후에도 지속적인 관계 유지를 가능하게 한다. 대한민국에서는 6.25 전쟁 이후 미국을 비롯한 유엔 참전국들과의 보훈외교가 주요한 외교 정책으로 자리 잡았으며, 이를 통해 참전국들과의 군사적 협력뿐만 아니라 경제적, 문화적 관계까지 확장하는 데 기여해왔다 (소병수 & 박현지, 2023).

보훈외교는 외국 참전용사들의 공헌을 기리고, 이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신뢰와 협력을 구축하는 수단으로 작용한다. 참전국들과의 관계 유지는 단기적인 외교적 이익을 넘어서, 장기적으로 국제사회의 신뢰를 쌓는 데 기여한다. 특히, 보훈외교는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고, 외교적 협력을 증진하는 역할을 하며, 이를 통해 전쟁 이후에도 국가 간의 우호적 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라미경, 2016).

대한민국의 보훈외교는 주로 6.25 전쟁을 기반으로 참전국들과의 외교적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Kim, 2022). 한국전쟁 당시 16개 유엔 참전국이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군사적 지원을 제공하였으며, 전쟁 이후 대한민국은 참전국들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보답으로 다양한 보훈외교 활동을 전개해왔다. 매년 6.25 전쟁 참전용사와 그 가족들을 초청하여 기념행사를 개최하며, 이들을 위한 의료 지원 및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대한민국은 참전국들과의 외교적 유대감을 유지하고 있다(오일환, 2015). 예를 들어, 2021년 대한민국은 한국전쟁 70주년을 기념하여 유엔 참전국 참전용사들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담은 메달을 전달하고, 각국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하는 등

보훈외교를 통해 국제사회의 신뢰를 공고히 했다(국가보훈처, 2021). 이러한 보훈외교 활동은 단순히 전쟁의 기억을 기리는 차원을 넘어, 참전국들과의 지속적인 외교적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송샘 · 유호근, 2021).

인천상륙작전은 보훈외교의 일환으로, 대한민국의 외교적 자산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인천상륙작전은 단순한 군사적 승리를 넘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는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인천상륙작전은 한반도에서 공산주의의 확산을 저지한 사건으로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국제적 협력의 상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인천상륙작전은 한반도 내에서 평화를 구축하고 전후 재건을 위한 기반을 제공하였다. 전쟁의 흐름을 바꾸고 북한군을 후퇴시킴으로써, 대한민국은 전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3) 보훈공공외교와 전쟁

보훈공공외교는 전쟁에서 희생된 군인들의 공로를 기리며 이를 외교적 자산으로 활용하여 국제적 협력과 신뢰를 증진시키는 외교 전략이다. 여러 국가에서 다양한 형태로 시행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가 간 관계를 공고히 하고 국제적 위상을 강화해 왔다. 대한민국 역시 이러한 보훈외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특히 인천상륙작전을 중심으로 한 보훈공공외교를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다.

미국은 전후 보훈외교의 선도적인 국가로, 전 세계 여러 지역에 전쟁 기념 묘지와 추모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다양한 국가들과의 외교적 관계를 유지해 왔다. 대표적인 사례로 노르망디 미국 전쟁 기념 묘지가 있다. 이 묘지는 제2차 세계대전 중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 희생된 미군 병사들을 기리기 위해 세워졌으며, 매년 프랑스와 미국 간의 기념식을 통해 두 나라의 외교적 관계를 공고히 하고 있다(Lemay, 2015).

노르망디 상륙작전 기념행사는 단순한 전쟁의 추모를 넘어, 민주주의와 자유의 가치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미국의 군사적 리더십과 외교적 신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Conner & Wheeler, 2018). 미국은 이러한 기념행사를 통해 다자간 협력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으며, 이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국가적 이미지와 외교적 입지를 강화해 왔다. 알링턴 국립묘지(Arlington National Cemetery)와 같은 기념 장소 역시 미국의 보훈외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국제 참전국들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보훈외교는 전쟁에서의 희생을 기리며 민주주의와 평화 수호를 위한 다자간 협력의 기반을 마련하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Conner & Wheeler, 2018).

프랑스는 보훈외교를 통해 국제적 연대를 강화하는 대표적인 국가 중 하나이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기념하는 행사는 프랑스와 여러 참전국들 간의 외교적 유대를 제고하며, 국제 협력을 촉진하는 행사로 자리 잡았다. 매년 6월 6일, 프랑스는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기념하며 미국, 영국, 캐나다 등 다양

한 참전국들과 함께 전쟁에서의 희생을 기리고, 이를 통해 다자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Smith, 2020). 프랑스는 이 행사를 통해 국제 평화 구축을 위한 상징적 의미를 전달하며, 보훈외교를 국제 사회에서의 외교적 입지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영국 역시 보훈외교를 통해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고 전후 외교적 입지를 강화해왔다. 대표적인 사례로 런던의 전쟁 기념관과 영연방 기념의 날(Remembrance Day)이 있다. 이 행사들은 영연방 국가들 간의 외교적 유대를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해주고 있으며, 영국은 이러한 보훈외교를 통해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한 국제적 연대를 강조, 전후에도 영연방 국가들과의 외교적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3. 인천상륙작전 의미와 공공외교적 가치

1) 인천상륙작전의 국내외적 영향

인천상륙작전은 1950년 9월 15일, 한국전쟁의 중대한 전환점으로 평가되는 군사작전으로, 당시 유엔군과 한국군이 북한군에 의해 점령된 서울을 탈환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한반도 내에서 전쟁의 판도를 바꿨다. 이 작전은 군사적 측면에서만뿐만 아니라 정치적, 경제적, 외교적 차원에서도 국내외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은 한국의 민주주의 체제를 공고히 하고,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전후 경제 재건의 기틀을 마련하는 동시에 국제사회의 민주주의와 평화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는 상징적 사건으로 평가된다.

인천상륙작전의 군사적 성공은 북한군의 남진을 저지하고 한반도 내 공산주의 세력의 확장을 막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작전 당시 북한군은 한반도 남부 지역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었으며, 대한민국 정부는 임시 수도 부산으로 철수한 상태였다. 인천상륙작전은 이러한 불리한 전세를 단숨에 뒤집고 대한민국이 서울을 탈환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서울을 탈환한 이후, 북한군은 퇴각을 시작하였고, 이로 인해 전쟁의 양상이 북한군의 공격에서 UN군과 한국군의 반격으로 바뀌었다.

이 군사적 성공은 단순히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유지와 공고화에 기여를 했다. 서울 탈환과 함께 대한민국은 수도를 회복하고, 이승만 대통령을 중심으로 정부 체제가 재정비되었으며,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할 수 있었다. 이는 대한민국이 공산주의 세력에 맞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 성과로 평가된다(Boose & Matray, 2014). 인천상륙작전은 단지 군사적 성공을 넘어서, 한국 사회 내에서 민주주의 체제의 회복과 정치적 안정을 가져다준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인천상륙작전은 국제사회에서도 큰 파장을 일으켰으며, 미국과 유엔군의 지원이 결집된 상징적인 군사작전으로 평가받았다. 특히, 미국이 주도한 이 작전은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인

천상륙작전 당시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 아래 미국은 군사적 리더십을 발휘하며 한국전쟁의 전세를 바꾸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Y'Blood, 2012). 이는 이후 대한민국과 미국 간의 군사적, 정치적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토대가 되었다.

또한, 인천상륙작전은 냉전 시기 민주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 간의 갈등 속에서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국제적 협력의 상징으로 기능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유엔군의 적극적인 개입은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존재를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후 대한민국은 냉전 질서 속에서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일원으로 자리잡았다. 유엔군의 역할은 인천상륙작전 성공 이후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민주주의와 평화를 지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다양한 외교적 협력을 이끌어내는 데 기여하였다(Stueck, 1997).

한편,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은 전후 대한민국의 경제적 재건과 번영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 작전 성공 이후, 대한민국은 전쟁으로 파괴된 경제 구조를 복구하고 산업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 인천항을 중심으로 한 해상 물류와 산업의 복구는 전후 대한민국의 경제 회복과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는 전쟁이 끝난 후에도 대한민국이 경제적 자립을 이루고, 고도 경제 성장을 달성하는 기반이 되었다(Yuhn, & Kwon, 2000; Pyo, 2001; Lee, 1997). 특히 인천상륙작전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경제적 원조를 통해 대한민국이 전후 재건을 빠르게 이룰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 미국의 대규모 경제 원조는 한국전쟁 이후 대한민국이 경제적 발전을 이룩하는 데 큰 역할을 수행하였다(Lee, 2001). 또한, 인천상륙작전을 통해 확보된 전략적 요충지 인천항은 대한민국의 국제 무역과 경제 성장을 이끄는 핵심 인프라로 자리잡았다.

또한, 인천상륙작전은 전쟁 중 군사적 승리를 넘어서, 전후 평화 구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과 연대의 상징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전쟁 후 유엔군과 대한민국의 협력은 한반도에서 평화 정착과 복구를 위해 국제사회의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였다. 이는 냉전 시기 민주주의 진영이 공산주의 진영에 맞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국제적 협력을 강조하는 상징적 사건으로 평가받는다.

2) 인천상륙작전의 공공외교적 가치

인천상륙작전은 1950년 한국전쟁의 군사적 승리로서의 역할을 넘어, 오늘날 공공외교적 자산으로 재조명되고 있다. 공공외교는 한 국가가 자국의 가치와 이미지를 국제사회에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타국과의 신뢰와 관계를 강화하는 수단이다(Tuch, 1990). 인천상륙작전은 단순한 군사적 승리를 넘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평화 수호, 그리고 한미동맹의 강화라는 상징성을 지니며, 이러한 가치들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는 공공외교적 자산으로 평가된다.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은 자유민주주의와 평화라는 보편적 가치를 대변하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평화와 번영을 위한 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

인천상륙작전은 대한민국이 공산주의에 맞서 민주주의와 자유를 지켜낸 상징적인 사건으로서, 오늘날 공공외교의 자산이 될 수 있다. 당시 북한군에 의해 한반도 전체가 공산화될 위기에 처해 있던 상황에서 인천상륙작전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체제를 지켜내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는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민주주의와 자유의 가치를 수호하는 국가로서의 이미지를 확립하는 데 기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23년 인천상륙작전 73주년 기념 행사에서 인천상륙작전이 공산 전체주의 세력을 물리친 자랑스러운 역사라고 제시하며, 인천상륙작전이 자유 민주주의 구축에 기여한 점을 강조하였다.

이렇듯, 공공외교적 관점에서 인천상륙작전은 대한민국이 자국의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와 자유의 가치를 국제사회에 전파하는 중요한 사례로 기능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오늘날까지도 인천상륙작전을 기념하며,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의 중요성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있다. 예를 들어, 매년 인천시는 ‘인천상륙작전 기념주간(Incheon Week)’을 통해 자유민주주의의 상징적 의미를 국제사회에 전달하며, 이 행사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재확인하고 전 세계와의 연대를 강화하는 공공외교적 이벤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인천상륙작전은 또한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는 공공외교적 관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인천상륙작전은 미국의 주도 하에 유엔군과 한국군이 협력하여 이루어진 국제적인 군사작전이었으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 상징적인 사건으로 평가된다. 오늘날 한미동맹은 단순한 군사적 동맹을 넘어서 경제적, 정치적, 외교적 협력으로 확장되어 있으며, 이러한 협력의 뿌리는 인천상륙작전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인천상륙작전은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으로 자리잡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이는 공공외교적 관점에서도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대한민국은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전 세계에 평화와 번영의 가치를 전파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으며, 이러한 협력 관계는 국제사회에서 공공외교적 자산으로 기능하고 있다. 인천상륙작전은 대한민국이 공공외교를 통해 국제사회와의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는 데 있어 상징적 사건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인천상륙작전은 전쟁을 종결로 이끈 승리뿐만 아니라, 이후 대한민국이 평화와 번영의 국가로 성장하는 데 기여한 전환점이었다. 이는 대한민국이 공공외교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평화와 번영의 가치를 실현하는 국가로 자리잡는 데 기여하는 자산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전후 경제적인 재건을 통해 고도성장을 이루었으며, 이러한 성장은 공공외교의 성공 사례로 평가될 수 있다. 인천상륙작전 기반을 마련한 전후 재건과 경제 성장의 경험은 공공외교를 통해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과 연대를 촉진하는 외교적 자산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한민국은 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 평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험은 대한민국이 전후 복구와 발전의 모범 사례로서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은 공공외교의 일환으로 평화 구축과 번영을 위한 국제적 협력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는 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상징성과 결부되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인천상륙작전은 인천시가 국제평화도시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에도 긴밀하게 연결될 수 있다. 인천시는 인천상륙작전의 상징적 가치를 바탕으로 지역 사회의 역사적 유산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고, 이를 통해 국제 평화와 협력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예를 들어, 인천시는 2025년부터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를 국제적인 규모로 확대하여, 국제 평화도시로서의 이미지를 공고히 하고 있다. 인천상륙작전의 공공외교적 가치를 활용한 국제적인 평화도시 이미지는 대한민국이 평화와 번영을 위한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중요한 의제가 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역사적 기념을 넘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이 평화와 협력의 가치를 전파하는 국가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인천상륙작전은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공공외교를 통해 평화와 번영을 실현하는 국가로 자리잡는 데 새로운 자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4. 인천상륙작전 공공외교 발전방향

1) 지역 수준

인천시는 2024년 2월 ‘인천상륙작전 기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의미를 지역 사회에 정착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 조례는 인천상륙작전의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학술, 문화, 체육, 관광 사업을 명문화하였으며, 지역 사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각적인 활동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기념사업은 인천 지역 주민들이 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의미를 인식하고, 이를 공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인천시는 매년 ‘인천상륙작전 기념주간(Incheon Week)’을 개최하여, 인천상륙작전을 기념하는 다양한 학술 포럼, 전시회, 문화행사 등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지역 주민들에게 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중요성을 환기시키는 동시에, 지역 사회가 국제사회와 연계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공공외교적 의미가 크다.

인천상륙작전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특히, 인천시는 인천상륙작전과 관련된 유적지 및 기념시설을 중심으로 관광산업을 발전시키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다크투어리즘(Dark Tourism)’의 일환으로 인천상륙작전 관련 유적지를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러한 프로그램은 인천 지역의 역사적 가치와 경제적 이익을 모두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현중, 2024). 예를 들어, 인

인천상륙작전 기념관과 팔미도 등 역사적 장소를 중심으로 한 관광 코스 개발은 지역 관광산업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의 전반적인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유적지 발굴 및 보존 사업은 인천 지역 주민들에게 역사적 자긍심을 심어주는 동시에, 경제적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사회 전체가 공공외교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할 수 있다.

인천상륙작전의 공공외교적 가치를 지역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평화 교육이 필수적이다. 인천시는 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의미를 지역 학교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지역 학생들이 평화와 자유의 가치를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평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학생들이 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의미와 현대적 함의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반도 및 국제 평화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공공외교 활용에 필수적이다. 인천상륙작전의 공공외교적 가치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역 사회와의 긴밀한 연계가 필수적이다. 인천시는 인천상륙작전 관련 기념시설을 중심으로 지역 사회의 다양한 기관과 협력하여, 지역 내 기업, 학교, 단체들이 인천상륙작전 기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 사회 전반이 인천상륙작전의 공공외교적 활동에 동참할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지역 내에서 평화와 자유의 가치를 공유하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 특히, 지역 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유산을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활동은 지역 차원의 공공외교 활동을 국제사회로 확장시키는 데 기초가 된다. 인천시는 이러한 연계 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 내에서 공공외교적 가치를 확산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인천을 국제 평화도시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다.

2) 국가 및 국제사회 수준

인천상륙작전은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외교적 위상을 높이는 역사적 자산이자 공공외교적 상징으로 활용될 수 있다. 국가 차원에서는 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의미를 바탕으로 보훈외교 및 평화외교 전략을 강화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 평화, 번영이라는 가치를 국제사회에 전파하고 대외 신뢰를 공고히 할 수 있다. 특히 국제사회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대한민국은 인천상륙작전을 세계 평화 및 민주주의 수호의 상징으로 자리잡게 할 수 있다.

인천상륙작전은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아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킨 상징적인 사건으로, 대한민국은 이를 기반으로 보훈외교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은 오랫동안 유엔 참전국들과의 관계를 보훈외교를 통해 유지해 왔으며, 이를 더욱 심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았다. 국가 차원의 보훈외교는 단순히 전쟁을 기념하는 것을 넘어, 참전국들과의 외교적 관계를 강화하고 국제 협력 체제를 만들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국가보훈처, 2016). 보훈외교는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구축하고 외교적 파트너십을 확대하는 데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매년 열리는 한국전쟁 참전용사 초청 행사 및 유엔 참전국들과의 공동 기념사업은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신뢰받는 국가로

자리매김하는 연결고리로 작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기념사업을 통해 대한민국은 참전국들과의 연대와 신뢰를 공고히 하고, 미래 세대에도 이러한 유대가 지속되도록 할 수 있다(소병수 & 박현지, 2023).

더 나아가, 대한민국은 국제적으로 평화와 자유를 수호하는 국가로서의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해 인천상륙작전의 상징성을 외교정책에 통합할 필요가 있다. 이는 6.25 전쟁 당시의 국제적 연대가 현대 국제사회에서도 이어지도록 하는 전략적 수단이 될 수 있다. 인천상륙작전의 정신을 이어받아 국가 차원의 보훈 및 평화외교를 전개함으로써,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신뢰할 수 있는 평화 구축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

인천상륙작전은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의 상징적인 사건으로, 이를 국제사회에서 공공외교적 자산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대한민국의 외교적 입지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인천상륙작전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 국제사회가 협력한 대표적 사례로, 이를 활용하여 국제 평화 구축 및 민주주의 확산을 위한 국제적 공공외교 활동을 강화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인천상륙작전의 상징성을 바탕으로 글로벌 평화외교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특히 국제적 차원에서 인천상륙작전을 재조명하고 이를 통해 국제 평화와 협력의 중요성을 알리는 행사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수 있다. 이러한 공공외교 활동은 대한민국이 단순한 군사적 승리 이상의 가치를 국제사회에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대한민국이 평화 구축에 기여하는 글로벌 리더로서의 위상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

한편, 프랑스의 캥 기념관(Caen Memorial Museum)은 인천상륙작전 보훈공공외교의 비교 사례로 살펴볼 수 있다. 캥 기념관은 프랑스 노르망디에 위치한 전쟁 기념관으로, 제2차 세계대전 중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기념하는 동시에 전쟁의 참상과 평화의 가치를 교육하고 알리는 중요한 장소로 자리매김했다. 이 기념관은 단순히 군사적 승리를 기념하는 공간을 넘어, 전후 국제사회에서 평화와 자유를 위한 다자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 박물관과 기념관은 국제 외교에서 문화외교의 도구로 활용되며, 국가의 소프트 파워를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Nisbett, 2013).

캥 기념관은 전쟁과 인류의 비극을 잊지 않기 위한 기념관일 뿐만 아니라, 전쟁이 가져온 파괴 속에서 평화와 인권의 중요성을 재조명하는 교육적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이 기념관은 전쟁 중 발생한 인권 침해와 전후 평화 구축 과정을 심도 있게 탐구하며, 이를 통해 전쟁의 비극을 기억하고 국제 평화와 협력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있다(Grincheva, 2020). 또한, 캥 기념관은 다른 국가들이 전쟁 기념관을 보훈외교와 공공외교의 자산으로 활용하는 데 모범 사례로 작용하고 있다. 전쟁과 평화의 기억을 전하는 기념관은 방문객들에게 전쟁의 참상을 기억하게 하며, 평화 외교의 상징으로 작용할 수 있다(Tamashiro & Furnari, 2015). 이와 유사하게, 대한민국의 인천상륙작전 기념관도 국제사회에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협력의 상징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 기념관은 평화와 번영을 위한 국제적 협력을 이끄는 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강화할 수 있는 외교적 자산으로 발전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대한민국은 인천상륙작전의 상징성을 통해 평화와 협력을 촉진하며, 이를 공공외교와 보훈외교

의 핵심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인천상륙작전의 공공외교적 가치를 국제사회로 확장하는 데 있어, 다자간 협력 및 국제 평화 네트워크 구축이 요구될 수 있다. 대한민국은 인천상륙작전을 기반으로 국제적 평화도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평화와 자유라는 공통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협력을 확대할 수 있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평화 구축을 위한 국제적 담론을 주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이 평화외교를 선도하는 국가로 자리잡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유엔 및 기타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인천상륙작전의 의미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평화 구축 프로젝트를 전개할 수 있다. 평화교육 프로그램이나 국제학술회의 등을 통해 대한민국은 인천상륙작전의 정신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며, 평화와 민주주의 확산을 위한 국제적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이러한 다자간 협력은 대한민국이 국제적 평화 구축의 선도국가로 자리잡는 데 있어 기반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천상륙작전을 평화 구축을 위한 국제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고려할 수 있다. 우선, 한국은 인천상륙작전을 기반으로 유엔 평화유지활동(PKO)과 연계하여 분쟁지역의 군인 및 민간인에게 평화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유네스코(UNESCO)와 협력하여 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의미를 평화교육 커리큘럼으로 개발하고, 국내외 학교와 교육기관에서 활용하도록 보급한다면 인천상륙작전의 의의를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인천상륙작전은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외교적 위상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은 평화 구축과 자유민주주의 확산에 기여하는 리더십을 강화할 수 있다.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은 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가치를 활용하여, 군사적 협력 이상의 가치를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글로벌 평화 구축의 주요 파트너로 자리잡을 수 있다. 특히 대한민국은 인천상륙작전 기념주관과 같은 국제 행사를 통해 국제사회와의 평화 협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다자간 외교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

5. 결론

인천상륙작전은 단순한 군사적 승리를 넘어, 대한민국의 보훈공공외교 전략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역사적 사건으로 자리잡을 수 있다. 인천상륙작전의 외교적 자산은 국가의 국제적 입지 강화를 위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공공외교와 보훈외교는 국가가 자국의 이익을 도모하고 국제 사회에서 신뢰를 얻는 데 중요한 외교 전략이며, 인천상륙작전은 이러한 외교적 활동의 상징적 사례로 활용될 수 있다.

먼저, 공공외교의 측면에서 인천상륙작전은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전달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상징적 자산이다. 인천상륙작전은 단순한 군사적 승리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공산주의에 맞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낸 역사적 사건으로, 이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특히, 공공외교의 핵심 이론 중 하나인 소프트 파워에 따르면, 군사적 강압이나 경제적 압박보다는 문화적 매력과 정치적 가치를 통해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Nye, 2008). 인천상륙작전은 대한민국이 이러한 소프트 파워를 통해 국제사회의 신뢰와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자산으로 평가된다. 이를 통해 한국은 세계 무대에서 민주주의와 자유의 가치를 지지하는 주요 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인천상륙작전이 보훈공공외교에서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이 작전이 다국적 군사작전으로서 국제적 협력의 상징으로 기능한다는 점이다. 인천상륙작전은 유엔군이 주도한 작전으로, 대한민국은 유엔 참전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자유와 평화라는 보편적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었다. 이는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협력과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한다. 이와 같은 협력의 정신은 오늘날에도 대한민국이 평화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국제사회에 전파하는 데 주요 의제로 활용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대한민국은 인천상륙작전의 상징성을 활용하여 공공외교의 다양한 전략을 펼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국제적 신뢰를 공고히 하고, 자유민주주의와 평화의 가치를 확산시킬 수 있다.

보훈외교의 측면에서도 인천상륙작전의 의미는 크다. 보훈외교는 국가가 전쟁에서 희생된 군인들의 공로를 기리며, 이를 외교적 자산으로 활용해 외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전략을 의미한다. 대한민국은 한국전쟁 당시 유엔 참전국들과의 협력을 유지하고 강화해 왔으며, 이러한 협력 관계는 인천상륙작전을 중심으로 더욱 견고해졌다. 인천상륙작전은 다국적 군사작전으로서 유엔 참전국들의 협력을 상징하며, 이는 대한민국이 전후 보훈외교를 통해 국제사회와의 신뢰를 구축해나가는 기회를 제공하였다(Kim et al., 2024).

특히, 보훈외교는 단순히 과거의 전쟁을 기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전후 참전국들과의 외교적 협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발전시킨다. 대한민국은 매년 한국전쟁 참전용사와 그 가족들을 초청하여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을 통해 유엔 참전국들과의 외교적 관계를 공고히 하고 있다. 인천상륙작전은 보훈외교의 상징적 사건으로, 대한민국이 전후 참전국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넓혀준다.

이와 같이 보훈외교는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신뢰받는 국가로 자리매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향후, 인천상륙작전의 외교적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적 차원에서부터 국제적 차원까지 다양한 외교 전략이 필요하다. 인천시는 매년 인천상륙작전 기념주관을 개최하여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이를 국제사회에 평화와 자유의 가치를 전달하는 공공외교 자산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행사는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평화와 자유의 가치를 전달하는 데 기여 할 수 있으며,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특히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대한민국은 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의미를 더욱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평화와 번영을 위한 국제적 협력을 촉진할 수 있다.

또한, 인천상륙작전은 대한민국이 평화와 민주주의 확산을 위한 국제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인천상륙작전은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은 평화와 번영을 위한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할 수 있다. 나아가, 인천상륙작전의 상징성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은 다자간 외교를 촉진하고, 국제사회에서 평화와 자유의 가치를 확산시키는 선도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듯, 인천상륙작전은 대한민국의 공공외교와 보훈외교 전개를 위한 중요 자원으로서, 국제사회의 신뢰와 협력 강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인천상륙작전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역사적 결단을 상징하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평화와 번영의 가치를 확산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역사적 자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대한민국은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외교적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인천상륙작전을 활용한 보훈공공외교는 가치외교의 관점에서도 함의가 매우 크다. 지난 2021년,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직후 가치외교를 강조하였다. 자유 수호(defending freedom), 보편적 권리지지(upholding universal rights) 등 민주적 가치(democratic values)에 기반한 외교를 제시하였다(The White House, 2021). 최근 신냉전 시대에 들어서면서 가치외교의 중요성을 매우 커지고 있다(반길주, 2024). 그러나 한국 공공외교 전략은 여전히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며(백우열, 2017), 가치외교에 기반한 공공외교의 방향성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김태환, 2019). 본 논문은 인천상륙작전을 중심으로 한국의 보훈공공외교의 가치외교적 관점을 제시한다. 인천상륙작전은 한반도, 나아가 당시 냉전 구도에서 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한 역사적 사건이라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한 공공외교 추진은 한국의 외교 전략 수립에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한국은 인천상륙작전의 특수성을 활용하여 공공외교 정책을 추진해나감에, 가치외교를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 질서 속에서 선도적 역할을 확립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 고정민 (2021). 한류의 공공외교 활용을 위한 정책방향. 공공외교: 이론과 실천, 1(1), 77-92.
- 고현중 (2024). 인천상륙작전의 다크투어리즘 자원화 가능성 연구. 관광연구저널, 36(1), 45-68.
- 국가보훈처 (2016). 유엔(UN) 참전용사 후손과 국내 대학생간 교류: 세대와 국경을 넘어 참전의 인연과 연결고리 지속. 국가보훈처 보도자료.
- 권혜원 (2023). 한국 정부의 난민 지원을 통한 공공외교: 튀르키예(터키) 내 시리아 난민 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디아스포라연구, 17(2), 201-236.
- 김동길 (2015).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전후 및 한국전쟁 초기, 중국의 한국전쟁과 참전에 대한 태도 변

- 화와 배경. 역사학보, 225, 231-261.
- 김태환 (2019). 가치외교의 부상과 가치의 ‘진영화’: 강대국 사례와 한국 공공외교의 방향성. 문화와 정치, 6(1), 5-32.
- 김태환 (2021). 한국 정책공공외교의 진화와 방향성: 공공외교에 대한 정체성 접근의 시각. 공공외교: 이론과 실천, 1(1), 1-28.
- 김형수, 노병렬 (2016).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외교 활성화 방안. 세계지역연구논총, 34(2), 91-113.
- 김형진 (2023). 한·미 가치동맹으로 나아가기 위한 공공외교 활성화. 한국국가전략, 8(1), 179-199.
- 라미경 (2015). 보훈과 외교: 공공외교를 통한 보훈정책의 외연 확대. 한국보훈논총, 14(4), 7-32.
- 라미경 (2016). 6.25전쟁 참전유공자 사례를 통해서 본 한국 보훈정책. 한국보훈논총, 16(4), 37-62.
- 박병철, 주인석 (2021). 한국전쟁에서 유엔군의 개입 근거와 역할에 관한 연구. 통일전략, 21(1), 9-34.
- 반길주 (2024). 신냉전 시대와 외교 유형론 정교화: 전통외교 vs. 가치외교. 신아세아, 31(2), 5-34.
- 백우열 (2017). 한국 공공외교 전략 및 정책 연구: 기초적 유형의 개념화. 국가전략, 23(3), 5-32.
- 백우열 (2017). 한국 공공외교 전략 및 정책 연구: 기초적 유형의 개념화. 국가전략, 23(3), 5-32.
- 변지영, 정현주 (2018). 한국의 공공외교와 세종학당: 2007-2015년 국가별 지정 요인에 관한 실증분석. 한국정치학회보, 52(2), 173-201.
- 성병욱 (2013). 공공외교의 환경변화와 한국의 대응방안. 대한정치학회보, 20(3), 1-23.
- 소병수, 박현지 (2023). 디지털 콘텐츠 기술을 활용한 보훈외교의 발전 방향. 공공외교: 이론과 실천, 3(2), 35-52.
- 송 샘, & 유호근 (2021). 보훈을 통한 공공외교 연구: 아프리카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보훈논총, 20(2), 57-84.
- 신가희, 정현주, 김미현 (2016). 한국 공공외교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탐색적 분석: 세종학당, 공적개발 원조,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가 한국의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세계지역연구논총, 34(4), 135-168.
- 오일환 (2015). 보훈외교의 국가안보 효과. 민족사상, 9(4), 119-148.
- 유영욱 (2010). 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평가. 한국보훈논총, 9(2), 7-40.
- 유호근 (2015). 보훈외교의 정치 경제: 맥락과 함의. 정치·정보연구, 18(1), 71-95.
- 이상의 (2021). 한국전쟁 구술사 연구와 인천. 인천학연구, 1(34), 137-185.
- 이상현 (2022). 보훈과 공공외교 연구: 콜롬비아 사례를 중심으로. 라틴아메리카연구, 35(3), 27-51.
- 이상호 (2019). 인천상륙의 크로마이트 작전 4가지 계획과 그 함의. 군사, 110, 359-388.
- 이유나 (2021). 공공외교 사례연구: 한류 활용 국제교류 교육 프로그램. 공공외교: 이론과 실천, 1(1), 93-104.
- 이한규 (2020). 한국의 대아프리카 공공외교에 대한 고찰. 한국과 국제사회, 4(1), 121-160.

- 정호윤 (2022). 한국의 대브라질 공공외교의 현황과 과제. *라틴아메리카연구*, 35(3), 53-83.
- 주미영 (2015). 글로벌 신뢰국가 이미지 형성을 위한 한국의 공공외교 연구. *정치·정보연구*, 18(2), 31-58.
- 진달용 (2021). 한류시대의 소프트파워와 문화외교: 담론분석. *공공외교: 이론과 실천*, 1(1), 55-75.
- 최지선 (2023). 설득의 외교로서의 공공외교와 그 수사학적 전략 2020-2021년 해외문화홍보원 코로나19 방역정책홍보 동영상 내 자막 분석. *한국방송학보*, 37(6), 275-310.
- 한의석 (2023). 대립하는 세계와 한국의 공공외교: 제2차 공공외교 기본계획과 정책공공외교를 중심으로. *공공외교: 이론과 실천*, 3(2), 53-68.
- 홍석훈 (2023). 한국의 공공외교 추진 현황과 확대 방안. *글로벌 거버넌스와 문화*, 3(2), 39-59.
- Boose, D. W, & Matray, J. I. (2014). *The Ashgate research companion to the Korean War*. Routledge.
- Conner, T., & Wheeler, J. (2018). *War and Remembrance*.
- Cull, N. J. (2009). *Public diplomacy: Lessons from the past* (Vol. 22). Los Angeles, CA: Figueroa Press.
- Gregory, B. (2008). Public diplomacy and governance: Challenges for scholars and practitioners. In *Global Governance and Diplomacy: Worlds Apart?* (pp. 241-256). London: Palgrave Macmillan UK.
- Grincheva, N. (2020). Museums as actors of city diplomacy: From “hard” assets to “soft” power. *City Diplomacy: Current Trends and Future Prospects*, 111-136.
- Huijgh, E. (2016). Public diplomacy. *The sage handbook of diplomacy*, 437-450.
- Kim, J., Lee, J. H., & Jung, H. (2024). Current Status and Future Directions of Korea's Veterans Diplomacy toward Colombia.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disciplinary Social and Community Studies*, 19(2), 221-235.
- Kim, K. (2022). The Korean War and public diplomacy: Dilemmas of remembering the forgotten war. In *Reconciling Divided States* (pp. 63-79). Routledge.
- Lee, J. W. (2001). The impact of the Korean War on the Korean economy.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Studies*, 5, 97-118.
- Lee, J. W. (1997). *Economic Growth and Human Development in the Republic of Korea, 1945-1992*. New York.
- Lemay, K. (2015). ‘No Vain Glory: Militarism, Diplomacy and Art in the American War Cemeteries in France’. *Journal of War & Culture Studies*, 8, 175-196.
- McLellan, D. S. (1968). Dean Acheson and the Korean War. *Political Science Quarterly*, 83(1), 16-39.
- Melissen, J. (2005). *The new public diplomacy*. Palgrave.
- Mor, B. D. (2006). Public diplomacy in grand strategy. *Foreign Policy Analysis*, 2(2), 157-176.
- Nisbett, M. (2012). New perspectives on instrumentalism: an empirical study of cultural diplomacy. *International Journal of Cultural Policy*, 19(5), 557-575. <https://doi.org/10.1080/10286632.2012.704628>

- Nye Jr, J. S. (2008). Public diplomacy and soft power.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616(1), 94-109.
- Nye, J. S. (2004). *Soft power: The means to success in world politics*. PublicAffairs.
- Pyo, H. K. (2001). Economic Growth in Korea (1911-1999): A Long-term Trend and Perspective. *Seoul Journal of Economics*, 14(1), 59-126.
- R., & Furnari, E. (2015). Museums for peace: agents and instruments of peace education. *Journal of Peace Education*, 12(3), 223-235.
- Smith, A. W. M. (2020). 'Crises of commemoration: Cold War, decolonization and the bungled 1954 D-Day commemoration'. *French History*.
- Snow, N. (2020). Rethinking public diplomacy in the 2020s. In *Routledge handbook of public diplomacy* (pp. 3-12). Routledge.
- Stueck, W. (1997). *The Korean War: An international history*(Vol. 68).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tueck, W. (2002). *Rethinking the Korean War: A new diplomatic and strategic histor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Tuch, H. N. (1990). *Communicating with the world : U.S. public diplomacy overseas*. New York: St. Martin's Press
- Y'Blood, W. T. (2012). *The three wars of Lt. Gen. George E. Stratemeyer: His Korean War diary*. Createspace Independent Publishing Platform.
- Yuhn, K. H., & Kwon, J. K. (2000). Economic growth and productivity: A case study of South Korea. *Applied Economics*, 32(1), 13-23.
- 외교부. “공공외교란?” https://overseas.mofa.go.kr/www/wpge/m_22709/contents.do. (검색일: 2024.9.26.).
- The White House, “Remarks by President Biden on America’s Place in the World,” (4 February 2021),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peeches-remarks/2021/02/04/remarks-by-president-biden-on-americas-place-in-the-world/> (검색일: 2024.9.26.).

Abstract

Expanding the Veterans Public Diplomacy: Focused on the Incheon Landing Operation

Moon Yechan^{*}

(Yonsei University)

The significance of the Incheon Landing Operation extends beyond its military victory. This study analyzes how the Incheon Landing Operation can be utilized as a key asset in South Korea's public diplomacy and veterans diplomacy, exploring its potential as a diplomatic tool for promoting peace and prosperity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Based on the theoretical frameworks of public diplomacy and veterans diplomacy, this paper reexamines the political and diplomatic importance of the Incheon Landing Operation both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From a public diplomacy perspective, the operation serves as a symbolic asset through which South Korea can convey the values of freedom and democracy to the global community, continuing to function as an effective diplomatic resource even today. Additionally, as a multinational military operation, the Incheon Landing Operation presents an important opportunity for South Korea to strengthen international solidarity and enhance its veterans diplomacy by maintaining close cooperation with UN member states that participated in the war. This research proposes strategies for utilizing the Incheon Landing Operation in veterans and public diplomacy, offering new perspectives on strengthening South Korea's diplomatic capabilities.

Keywords : Incheon Landing Operation, Public Diplomacy, Veterans Diplomacy, Korean War, Democracy

투고일: 2025. 01. 01.

최종심사일: 2025. 03. 12.

게재확정일: 2025. 03. 12.

* Moon Yechan, ans3981@naver.com